

기본교리로서의 경천에 관한 연구

崔 東 熙 *

目 次

- I. 머리말
- II. 경천의 종교적인 위치
- III. 공경의 종교적·윤리적인 의미
- IV. 경천의 참된 종교적인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신조”(信條) 가운데 “경천(敬天)”과 “수도(修道)”가 들어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 종단의 기본적인 신앙조목(信仰條目)을 그 종단의 기본적인 “교리(教理)”라고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의 신조 가운데 들어있는 경천과 수도를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있는 두 조목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조목을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체계」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九天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단이다. 여기서 구천(九天)이란 상제가 계시는 자리를 강조하여 나타낸 말이라고 한다.¹⁾ 결국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은 상제인데 이것을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九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를테면 하늘 전체를 아홉 영역으로 나누어 합쳐서 九天이라고 하고 혹은 하늘을 아홉 층으로 나누고 그 가장 높은 층을 九天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소박한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학술적인 용어로 쓰기는 어렵다.

은 바로 상제 또는 하느님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제’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는 상제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믿고 받드는 상제 또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종교학적으로 혹은 종교철학적으로 이해하고 밝히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근본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상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의 이해도 없이 그 주변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적어도 상제가 바로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역사적인 종교의 신앙 대상과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는 분명한 전제밑에서 “경천(敬天)”의 문제와 “수도(修道)”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먼저 경천이란 “상제를 공경하는 것”을 뜻한다. 상제는 바로 신앙의 대상이므로 상제를 공경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생활(종교생활)에 속하는 하나의 실천조목이다. 곧 하나의 “신조”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의 신앙생활은 “상제를 공경하는 것”(경천)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방향이 전개된다고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천(상제를 공경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조 가운데서 그 중심이 되는 신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修道)란 신조에 따라 자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도가 있고 특수한 목적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강행하는 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수도와 특별한 수도가 있지만 그 어느 것이나 그 종교의 신조(곧 기본교리)를 자각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

우리는 지금 대순진리회요람의 “7. 신조” 가운데 있는 “경천”과 “수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먼저 대순진리회의 신조들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없이는 하나하나의 신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대순진리회는 하나의 독자적인 종교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교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론 그 교리의 체계는 끊임없이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저마다의 종교로서는 그 교리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슬기롭고 자각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참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대순진리회는 상제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교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히 종교에 관

심을 가진 지성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리체계가 자각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기본교리의 자각적인 정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계당국과 학자들의 슬기로운 공동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경천(敬天)을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로서 다룰 것이다. 상제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의 기본교리 체계 속에서 “상제를 공경하는 것”(경천)은 그 가장 중심적인 교리(곧 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상제 자체는 깊이 다룰 수 없다. 이 문제는 하나의 근본과제로서 다른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상제를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뿐이다. 이러한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인가에 대하여 종교학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인간의 종교적인 태도 가운데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공경(恭敬)”이나 “경외(敬畏)” 또는 “숭경”(崇敬, reverence)을 가장 근원적인 태도라고 보는 종교가나 학자가 동서양에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사적·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경천”(상제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기본교리를 신중히 밝혀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수도”(修道)라는 기본교리를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요람』에는 “수도”라는 항목이 두 곳에 나타나 있다. 그 하나는 “7, 신조”에 경천 다음에 나타난 수도고 다른 하나는 “9, 수도”에 나타난 수도다. 앞뒤의 문맥과 그 내용으로 미루어 경천 다음의 수도는 수도의 근본정신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9, 수도”의 수도는 수도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라는 말에 서로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본론에서 수도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에 대한 분석·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경천 다음의 “수도”는 수도의 근본정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II. 경천의 종교적인 위치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15쪽)

이 문장의 참된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다소 문장을 몇 갈래로 분석하여 보고 다시 다소 달리 표현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늘 잊지 말자”는 대목을 분석하여 따져 본다. 여기서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늘 잊지 말자”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흔히 행동을 내적인 행동(마음의 움직임)과 외적인 행동(밖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나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라는 말을 “몸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하여”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구성하여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삼가하여 상제님을 늘 받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대목을 분석하여 다시 구성하여 본다. 여기서 “늘 상제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둔다.”는 말은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말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알아들을 수 있다. 이리하여 이 대목 전체의 뜻도 그런대로 알아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대목과 위에서 본 대목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대목도 양껏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늘 상제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마음 속에 새겨 둔다.”는 것은 상제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대목을 좀 대담하게 다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스스로 정성을 다하여 상제님을 늘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앞 대목과 뒷 대목을 다시 구성하여 보면 두 대목의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사람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삼가 상제님을 받들어야 한다.

(2)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다하여 상제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 두 명제는 결국 내용이 같으므로 하나의 명제 곧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다음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말과 ‘공경해야 한다’는 말도 그 뜻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지만 여기서는 “경천(敬天)”의 종교적인 의미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상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상제를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이 명제가 바로 대순진리회의 신조인 “경천(敬天)”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순진리회요람』 “7. 경천”에 달려있는 해설문장을 분석하여 다시 구성하여 보았다. 결국 “경천”이란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상제를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로서 대순진리회의 신조 가운데 하나다.

대순진리회에는 경천 이외에도 안심, 안신, 수도, 성(誠), 경(敬), 신(信)이 있다. 따라서 이들 다른 신조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만 대순진리회의 독자적인 신조로서 경천이 신중히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대순진리회에서 해설한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상제를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에 따라서만 “경천”이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종단의 독자적인 신조로서 경천이 매우 신중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다소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경천 곧 “하늘(上帝)을 공경한다”(敬天)고 할 때 이 “공경”(恭敬)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느냐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공경의 종교적·윤리적인 의미

저 중국 고대문화 속에 “공경”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시경』(詩經)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구절이 보인다.

하느님 노하심을 두렵게 여겨 마구놀고 즐기지 말며, 하느님 화내심을 두렵게 여겨 마구 날뛰지 말라.(敬天之怒, 無敢戲豫. 敬天之渝, 無敢馳驅. 『詩經』 大雅, 板)

우리는 흔히 한자 “敬”을 “공경경”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흔히 “삼가고 존경함²⁾”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 “경천지노”(敬天之怒)라는 대목을 “하느님 노하심을 공경하여”라고 옮긴다면 적어도 오늘의 우리에게선 좀 이상하다. 따지고 보면 하느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다. 하느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시경』의 시 첫귀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하느님이 멀리하시면 백성은 모두 병드네.”(上帝板板, 下民卒瘵) 이렇게 하느님이 노하여 우리 인간을 멀리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느님의 노여움”이라는 더없는 공포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심정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도 하느님 자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느님 노여움에 대한 종교적인 심정이 문제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위 『시경』의 시에서는 바로 “하느님 노여움”(天之怒)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심정을 문제삼고 있다. 그 심정을 바로 “경”(敬)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이 한자를 “두려움”이라고 우선 옮겨 보았다. 하느님의 노여움에 대한 인간의 심정을 나타낸 이 “경”(敬)을 오늘의 우리말로써 두려움이라고 옮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공경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경(敬)에 본래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결국 하느님에 대한 심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갓 지진 같은 자연적인 위력에 대해 느끼는 심정과선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래 자각적인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에 그칠 수 없다.

그 두려움은 하느님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삼가는 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들의 자각이 깊어져 감에 따라 하느님 노여움에 대해 두려움과 함

2)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4, “공경2”

게 몸과 마음을 더욱 삼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경(敬)은 오히려 삼간다는 뜻으로 알려져 왔다. 바로 『설문해자』(說文解字, 許慎)에서는 “경(敬)은 삼가는 것이다.”(敬, 肅也)라고 풀이하었다. 『시경』(詩經, 周頌, 閔予小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소자(小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敬)합니다.”(維予小子, 夙夜敬止.) 이 경(敬)을 정현(鄭玄)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었다. “경한다는 것은 삼간다는 뜻이다.”(敬, 慎也) 이와 같이 경은 본래 “두려워한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글자의 뜻은 오히려 “삼간다”는 쪽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노여움에 대해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것은 그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과 이어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삼가는 마음과 이어져 있는 두려움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심정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敬)에서 두려움과 삼감(慎, 肅)이라는 두 종교적인 심정을 찾아낸 셈이다.

인간은 하느님 노여움에 대해서도 그 노여워하는 하느님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본래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욱 더 하느님의 노여움이나 기쁨이 아닌 하느님 자신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하여 하느님을 더욱 더 인간적인 존재로서 받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느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섬기는데 그칠 수 없게 되었다.

더없이 높은 상제님 저를 알아주지 않으시네. 밝게 살피는 신들을 경공(敬恭)했으니 이렇게 저를 탓하고 성내지 마시기를.(昊天上帝, 則不我虞. 敬恭明神, 宜無悔怒. 『詩經』, 大雅. 雲漢)

여기에도 심한 가뭄을 내리시는 상제님의 노여움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저”라는 하소연하는 하나의 인간과 상제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인격으로서의 한 인간이 인격적인 상제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에서 “밝게 살피는 신들을 경공(敬恭)하였다.”고 말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이라는 표현에서 상제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령님을 받들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러 신령님이 상제님 밑에 달려 있어서 사실상 그 손발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제를 비롯한 “밝게 살피는 신들”을 받든다는 것은 결국 상제를 잘 받든다는 것을 뜻

하게 된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구절의 앞 구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올해도 풍년을 아주 일찍 빌었고 사방신(四方神)과 토신(土神) 제사도 제때 지냈다네”(新年孔夙, 方社不莫) 이에 대한 주자(朱子)의 풀이(詩經集傳, 卷十八 雲漢)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풍년을 빈다는 것은 이른 봄에 상제에게 금년의 풍작을 빌고 초겨울에 천종(天宗, 곧 日月星辰)에게 내년의 풍년을 비는 것을 말한다. 방(方)이란 사방신(四方神)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사(社)는 토신(土神)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이라고 하는 것이 상제를 비롯한 일월성신의 신들(天宗, 日月星辰之神)과 동방·서방·남방·북방의 신들(四方神)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여러 신 가운데서 가장 밝게 살피는 최고의 신이 바로 상제다. 이러한 상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인 태도가 바로 “경공”(敬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경공이란 과연 어떠한 종교적인 태도일까? 이 경공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공경(恭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경(敬)을 “두렵게 여김” 또는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肅, 慎)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경(敬)이라는 글자의 뜻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삼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두려움이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경(敬)에 공(恭)을 더하여 경공(敬恭)이라고 표현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敬)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공(恭)을 더하여 “경공”(敬恭)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恭)은 경(敬)과는 다른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먼저 경(敬)만으로는 안되고 공(恭)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사정을 살펴본다.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밝게 살피는 “더없이 높은 상제님”(昊天上帝)에게는 경(敬)만으로는 안되고 공(恭)을 더해 “경공”(敬恭)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삼간다는 것은 본래 소극적인 태도에 속한다. 이미 노여워하는 상제

앞에서는 우선 몸과 마음을 그저 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 자체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밝게 살피는 상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저 삼가는데 그칠 수 없다. 그러므로 경(敬)만으로는 안되어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뜻하는 공(恭)을 더하여 경공(敬恭)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공(恭)의 뜻을 살펴보면 “받든다”(奉)는 옛스러운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나는 하늘의 벌을 받들어 실행한다. 수레의 왼쪽 군인이 수레 왼쪽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수레의 오른쪽 군인이 수레 오른쪽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수레를 모는 군인이 그 말을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今予惟恭行天之罰. 左不攻于左, 汝不恭命. 右不攻于右, 汝不恭命. 御非其馬之正, 汝不恭命. 『書經』, 夏書, 甘誓)

하나라 임금 계(夏王 啓)가 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 제후인 유호(有扈)를 무력으로 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은 군사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엄숙히 맹세하여 타일렀다. 그 가운데서 임금은 “이제 나는 하늘의 벌을 받들어 실행한다.”고 무엇보다도 엄숙히 말하였다. 이 “하늘의 벌을 받들어 실행한다.”(恭行天之罰)는 대목이 무엇보다도 눈에 띈다. 이 대목에 있는 원문 “恭行”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송대에 나타난 풀이(朱子の 가르침에 따라 蔡沈이 완성한 『書集傳』 六卷)에 따르면 “삼가 실행한다.”(敬行)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연대가 훨씬 앞서는 동진(東晉, 317~419) 초기에 나타난 풀이(東晉의 元帝 때 秦上된 이른바 『孔安國傳古文尙書』)에 따르면 “받들어 실행한다”(奉行)는 뜻으로 된다. 이러한 공(恭)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곧 “삼간다”(敬)와 “받든다”(奉)는 두 해석 가운데서 종교학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받든다”는 쪽이다. 하늘의 노여움 때문에 삼가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汝不恭命)는 대목에 있는 “불공”(不恭)에 대해서도 위 『공안국전』(孔安國傳, 이것은 魏晉代(220~317)에 前漢의 孔安國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書經의 해석서다.)은 “받들지 않는다”(不奉)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공안국전』(孔安國傳. 이것은 唐의 五經五義의 하나인 尙書正義에 의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에 의하여 공(恭)의 좀 더 예스러운 뜻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라 임금(夏王)이 “하늘의 벌을 받들어 실행한다”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뜻대로 대신하여 실행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라 통치질서를 가로막는 제후를 정벌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라 군인들이 저마다의 제구실을 다하지 않으면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不恭命)이라고 하였다. 이 원문 불공명(不恭命)을 저 『공안국전』(孔安國傳)은 “내 명을 받들지 않는다”(不奉我命)라고 해석하였다.³⁾ 그러나 이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라는 대목도 그저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치는 싸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제구실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마침내 하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으로 된다.

지금까지 경공(敬恭)이라고 하듯이 경(敬)과 함께 쓰이는 공(恭)의 뜻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삼간다”(肅)는 뜻을 지닌 경(敬)을 보충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공(恭)이 “받든다”(奉)는 뜻을 지닌다면 두 글자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곧 경공(敬恭)은 하늘 또는 상제에 대하여 “삼가고 받드는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중국역사에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가 널리 쓰여진 과정이 종교적인 과정을 거쳐 윤리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본 “밝게 살피는 신들을 경공한다”(敬恭明神)는 구절에 보이는 경공(敬恭)은 종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실례일 것이다. 밝게 살피는 신 곧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삼가고 받드는 것”(敬恭)이 가장 종교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몸과 마음으로 삼가고 또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절대적인 존재는 모든 것을 환히 밝게 살필 수 있는 영명(靈明)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목욕을 하고 음식을 삼가고 몸가짐과 말을 조심하는 것 같은 몸쪽으로 삼가고 또 삼가는데 그칠 수 없다. 마음 쪽으로도 깊이 삼가 조심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삼가는 것은 또한 절대적인

3) 尙書正義, 卷七 甘誓第二, 夏書

존재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절대적인 존재를 높이 받들어 더없이 위해야 한다. 한편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바치려고 할뿐만이 아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자나깨나 절대적인 존재만을 받들어 높인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더없이 삼가는 것이 경(敬)은 몸 쪽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宗教儀式)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 쪽으로는 여러 가지 신조와 교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높이 받드는 것이 공(恭)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공(恭)도 몸쪽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 쪽으로는 여러 가지 신조와 교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경공(敬恭)은 반드시 그 종단의 현실적인 의식과 교리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 종단의 의식과 교리를 통해서만 절대적인 존재를 경공(敬恭)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종단을 전제하지 않은 종교행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인 경공(敬恭)은 도덕적인 경공(敬恭)과는 매우 다르다. 도덕적인 경공은 반드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어떤 종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회의 인간관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서주(西周) 시대의 중국사회에서 옳다고 믿어졌던 인간관계를 근거로 하는 도덕의 체계가 있었다. 이 도덕은 본래 서주라는 어떤 사회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실천의 기준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의 도덕은 우리 한국사회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실천의 기준이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실천의 기준과 도덕적인 실천 기준은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종교적인 경공(敬恭)과 도덕적인 경공은 본래 그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공자(孔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군자(君子)가 그르게 말한다면 백성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 그르게 말하게 된다. 군자가 그르게 행동한다면 백성은 그것을 본따게 됩니다. 군자가 말함이 말의 기준을 그르게 하지 않고 행동함이 그 기준을 그르게 하지 않으면 백성은 명령을 안해도 ”경공“(敬恭)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몸을 삼갈 수 있게 되고 그 몸을 삼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모의 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孔子對曰, 君子過言則民作辭, 過動則民作則, 君子言不過辭, 動不過則, 百姓不命而敬恭. 如是則能敬其身. 能敬其身, 則能成其親矣. 『禮記』卷第二十七 哀公問)

여기서 “백성은 명령을 안해도 경공(敬恭)한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저 앞에서 말한 “밝은 신(神)들을 경공(敬恭)한다”는 대목과 잘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밝은 신들을 경공한다”고 할 때의 경공을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삼가고 받드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성은 명령을 안해도 경공한다”고 할 때의 경공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똑같은 경공(敬恭)이라는 말이지만 앞뒤의 문맥으로 미루어 그 의미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공은 밝은 신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인 군자(君子)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 군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제후(諸侯)인 노의 애공(魯哀公, 기원전 495~468)을 가리킨다. 이 무렵의 강대한 제후들은 임금이라 하였고 그 다스리는 지역은 사실상 독립된 국가로 되어갔다. 그러나 아직 주왕실(周王室)에 속해 있는 제후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제후를 경공(敬恭)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앞뒤의 문맥으로 미루어 결국 군신(君臣) 사이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서주(西周, 기원전 1100~770)의 봉건체제에서는 군신·부자·부부·형제 같은 인간관계에 대한 행동기준들이 이른바 예(禮)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예를 윤리라고 본다면 제후에 대한 “경공”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경공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경공은 아직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리로서의 경공은 그 적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그 의미내용도 달라져갔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공은 공경(恭敬)이라는 말로 바뀌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경공(敬恭)이라는 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卷第十七 襄公四)에는 “아버지의 명을 경공한다”(敬共父命)는 구절이 보인다. 이 경공(敬共)은 경공(敬恭)과 같은 말이다. 공(恭)은 공(共)과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구절 조금 뒤에 “아침저녁에 경공한다”(敬共朝夕)는 구절도 보인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을 아침저녁에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공(敬恭)은 제후를 삼가 받든다는 뜻으로 되었고 아버지의 명을 아침저녁에 삼가 받든다는 뜻으로 되어갔다. 이러한 윤리적인 경공은 “공경”(恭敬)이라는 말로 변하여 그 의미내용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갔다. 바로 『예기』에는 앞에서 본

경공(敬恭)이라는 말과 함께 공경(恭敬)이라는 말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이 정착되어 있다. 그 의미내용도 미묘하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공경·준절·퇴양으로 예를 뚜렷하게 밝힌다.”(是以, 君子恭敬擗節退讓, 以明禮, 『禮記』曲禮上) 여기서 군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을 주로 뜻한다. 여기서 준절(擗節)은 사사로운 심정을 억누르고 예절을 지키는 것 곧 절제(節制)를 뜻한다. 퇴양(退讓)은 나아가거나 받을 때 신중한 것 곧 겸손을 뜻한다.

그런데 공경(恭敬)은 여기서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예를 뚜렷이 밝히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무렵의 윤리는 주대(周代)의 봉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예(禮)로서의 윤리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전통적인 천(天)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주·춘추시대의 윤리가 시대에 따라서 실천하는 인간의 정신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예의 근본정신으로서 공경(恭敬)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구절에서 “공경·준절·퇴양”으로 예를 뚜렷이 밝힌다고 한 것은 이들 세 덕목이 바로 예의 근본정신임을 뜻한다. 그들 가운데서도 맨 먼저 든 공경이 예의 근본정신이라는 것도 암시한다. 사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증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자는 예를 안다고 이를만 하다. 그는 공경(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曾子曰, 晏子可謂知禮也己. 恭敬之有焉. 『禮記』, 檀弓下) 이렇게 예를 밝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강조한다. 공경이 바로 예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를 정말 잘 아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의 근본정신이 공경이라고 강조될 때의 공경(恭敬)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춘추시대의 예는 그 이전의 전통에 따라 정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기본원리를 함께 포함한 매우 넓은 범위의 실천기준이었다. 예에는 “귀신과 상제를 섬기는”(事鬼神上帝, 『禮記』禮運) 인간의 행동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윤리에 있어서 그 근본정신이 바로 공경이라고 한다면 공경의 의미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무렵의 예는 주(周)나라 봉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인

간관계는 상하질서(上下秩序)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간의 상하관계는 결국 천을 비롯한 여러 신과 인간의 상하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 무렵의 예(곧 윤리)는 천과 인간의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하질서라고 볼 수 있다. 곧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상적인 관계가 바로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 곧 예를 개별적으로 문제삼던 단계를 넘어서서 종합적으로 반성하게 되어 차츰 예의 본질을 밝히려고(明禮)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예의 근본정신으로서 마침내 공경(恭敬)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 서주시대의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상하관계를 위해 공경이 강조되었다. 이 경우에도 공경은 앞에서 본 “경공”(敬恭)과 언어상의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경공을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종교적인 경공과 윤리적인 경공을 구별하였다. 이제 두 글자의 자리가 바뀌어 공경(恭敬)으로 변해도 그 두 글자 뜻은 그렇게 변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경은 역시 두 글자 뜻에 따라 “받들고 삼간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뜻이 다소 달라졌다. “삼가고 받든다”(敬恭)고 할 때 삼가는 것은 준비단계고 받드는 것이 목적이다. 신에게 제사를 받들기 위해 혹은 임금을 받들기 위해 삼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들고 삼간다”(恭敬)고 할 때는 받든다는 것과 삼간다는 것이 서로 제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윗사람을 받들기 위해 애써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받든다는 뜻이고 윗사람을 위해 아주 조심하는 것이 삼간다는 뜻일 것이다. 웃어른을 받들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주로 몸쪽이고 웃어른을 위해 조심하는 것은 주로 마음 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윤은 말하였다. “용모 쪽으로는 공이라 하고 마음 쪽으로는 경이라 한다.” 이렇게 하윤이 말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 저 용모 쪽이 많고 마음 쪽이 적은 것을 공이라 하고 마음 쪽이 많고 용모 쪽이 적은 것을 경이라 한 것이다.(何胤公, 在貌爲恭, 在心爲敬. 何之所說, 從多舉也. 夫貌多心少爲恭, 心多貌少爲敬. 「禮記」曲禮上, 君子恭敬撝節, 疏)

이렇게 받든다(恭)는 것은 주로 용모쪽을 말한다는 것이다. 곧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더없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공(恭)이라고 한다. 높고

귀한 분에게 이마를 조아려 두 번 절하는 것(稽顙再拜) 같은 공손한 태도가 바로 공일 것이다. 이에 대해 삼간다(敬)는 것은 주로 마음 쪽으로 웃어른을 위해 매우 조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은 본래 남을 엄하게 타이른다(驚我)는 뜻으로 쓰이다가 스스로 자기를 타이르는 것 곧 조심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조심(操心)도 바깥 위기에 대한 경계심으로부터 자기 본심을 굳게 지킨다는 뜻으로 변하게 되었다. 『맹자』(孟子, 盡心上)에 보이는 조심은 스스로 자기의 본심을 굳게 지킨다는 도덕적인 뜻이다.

위에서 죽 본 바와 같이 경공(敬恭)이 종교적인 의미와 나아가서 윤리적인 의미로 쓰여졌고 공경(恭敬)은 윤리적인 의미와 나아가서 도덕적인 의미로 쓰여져 왔다. 여기서 윤리적이란 그 사회관습을 바탕으로 한 행동기준 쪽으로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이란 윤리학적인 반성이 들어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도덕적인 단계의 공경은 유교의 발전에 따라 어느덧 경(敬) 한 자로 집중되어 갔다. 이 경우에도 경공이 “경” 한 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경천”(敬天)이라고 할 때의 경은 경공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느님을 삼가 받든다”는 뜻일 것이다. 다음으로 공경을 그저 “경”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안자는 예를 안다고 이를만하다. 공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注) 예는 경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晏子可謂知禮也己. 恭敬之有焉「注」言禮者敬而已矣. 『禮記』檀弓下) 여기서 안자는 공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예란 그 근본정신이 바로 “경”(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경은 바로 앞의 공경을 간추려서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 공경이 예의 근본정신으로 반성되어 있다는 점은 맹자(孟子)의 도덕철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은의 마음은 인이고 수오의 마음은 의이고 공경의 마음은 예이고 시비의 마음은 지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셋물로 칠해 꾸미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본래 이들을 갖추고 있다.(『孟子』告子上)

가엾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인의 싹(仁之端)인 것처럼,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의의 싹(義之端)인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도 예

의 싹(禮之端)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싹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본래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인데 이에 따르면 공경도 인간이 본래 타고난 순수한 도덕심이다. 이렇게 맹자가 비로소 공경을 순수한 도덕적인 공경으로 심화하고 순화하였다. 이러한 맹자의 공경이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맹자의 공경을 과연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을까? 여기서 두가지를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맹자에 있어서는 공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타고난 도덕심이라는 것이다. 그 다른 하나는 맹자가 공경하는 마음을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사양하는 마음을 예의 싹이다.”(『孟子』公孫丑上) 우선 우리 인간이 본래 타고난 “사양하는 마음”이 바로 “공경”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양의 뜻이 무엇일까? “윗사람이 물을 때 사양하지 않고 대답하면 예가 아니다.”(長者問, 不辭讓而對, 非禮也. 『禮記』曲禮上) 윗사람이 무엇을 물으면 먼저 자기는 불민(不敏)하여 대답할 수 없다고 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양은 윗사람을 받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받들고 삼간다”는 것을 뜻하는 공경과 같은 뜻이다. 이와 같이 맹자에 있어서도 “공경”은 “받들고 삼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공경은 예(禮)가 아니고 예의 싹 곧 타고난 인간의 도덕심이라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대체로 춘추시대까지는 봉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기준인 예가 거의 조건없이 강조되어 왔다. 앞에서 본 “경공”(敬恭)이나 “공경”(恭敬)도 예의 한 부분으로서 통해왔다. 그러다가 춘추시대 말기에 나타난 공자가 전통적인 예에 대한 윤리적인 반성과 체계를 시도하였다. 그는 특히 형식적·외면적인 예에서 인간적인 의미를 찾고 그 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인간성(仁)을 찾아내는데 힘썼다. 그 뒤를 이어 전국시대 중기쯤에 나타난 맹자(孟子)는 좀 더 나아가 전통적인 예를 학문적으로 반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중국사상사의 발전에 따라 공경이라는 윤리적인 개념도 그 의미내용이 미묘하게 변하여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의미변천의 과정을 대충 살펴본 것이다. 이를테면 공경의 개념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저 경

공(敬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존재를 위해 목욕재계하고 희생·제물을 받든다는 뜻을 지녔다. 상제를 삼가 받든다는 것이 그 좋은 보기일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제후 같은 높고 귀한 분을 “삼가고 받든다”는 윤리적인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에 “삼간다”는 것은 목욕재계와 같은 종교적인 뜻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조심한다는 뜻으로 되어갔다. “받든다”는 것도 종교적인 뜻이 아니라 웃어른의 지위와 인격을 우러러본다는 뜻으로 되어갔다. 이러한 윤리적인 “경공”은 “공경”으로 변해 널리 쓰이게 되고 맹자에 이르러서는 도덕철학적인 뜻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서 “받든다”(恭)는 것은 사람을 인격으로서 높인다는 뜻으로 되고 “삼간다”(敬)는 것은 자기 양심(良心)을 삼간다는 뜻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공경”은 중국사상사를 통해 다양한 의미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대체로 종교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경이 편의상 간단히 “경”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찍부터 중국문화를 받아들여온 우리 문화 속에서는 공경과 “경”(敬)은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1527년에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 下, 中宗二十二年)는 “경”(敬)이라는 한자를 “공경경”이라고 하여 그 뜻과 소리(音)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을 곧 공경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것을 뜻한다. 공(恭)을 “온공공”이라 읽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공(恭)을 온순하고 공손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경(敬)도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뜻으로부터 마음을 삼간다는 뜻으로 변해갔고 다시 제 마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변해갔다.

IV. 경천의 참된 종교적인 의미

우리는 위에서 대순진리회의 모든 종교활동은 “경천”(敬天) 곧 “상제를 공경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변해온 과정도 좀 지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로서의 경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경천(敬天)이라는 말은 중국 고전의 여기저기에

보인다. 그리고 중국 사서나 우리나라 사서에도 심심찮게 나타나있다. 그런데 이런 경천은 본래 유교적인 경천이거나 역사적으로 알려져온 경천이다. 따라서 이런 경천은 저마다 그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경천은 대순진리회라는 독자적인 종교집단에서 현실적으로 믿고 있는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먼저 이런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선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인 “경천”(敬天)에 있어서의 천(天)은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인 “상제님”이다. 저 중국 고대문화에 나타나는 상제나 천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추상적으로 그저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유교에서 구체적으로 믿어온 상제와 오늘날 대순진리회에서 현실적으로 믿고 있는 상제는 그 의미내용이 매우 다르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典經 教運 제2장 32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상제의 종교적인 의미는 매우 복잡하다. 저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상제가 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신미년(辛未年, 1871)에 전라도 고부(古阜) 땅에서 태어난 증산(甌山, 姜一淳)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래 신비스러운 이중성을 갖춘 상제가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상제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믿어지게 된 과정이 있다. 곧 을축년(乙丑年, 1925)에 도주(道主 趙鼎山)가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받들어 모셨다. 이렇게 대순진리회라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종교공동체(宗教共同體)가 믿고 있는 상제는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자적인 신앙대상이다. 저 중국 고대문화에 나타나는 상제나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상제와는 그 의미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상제님은 그 독자적인 신앙과 의례(儀禮)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제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과 의례의 구체적인 체계가 바로 대순진리회라는 종교공동체일 것이다. 여기서 공동으로 믿는 기본교리(신조)

가운데 하나가 경천인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천은 상제를 뜻한다. 경(敬)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공경(恭敬)을 뜻하는 말로 통해 있다. 이리하여 경천은 일반적으로 풀이한다면 “상제를 공경한다”는 뜻으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제는 물론 대순진리회에서 믿고 있는 상제님이다. 따라서 공경한다는 것도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의례를 전제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과연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상제님이 매우 독자적인 신앙대상 이라면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과 행위도 매우 독자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경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변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종교적인 의미는 천(天) 또는 신(神)에 대해 “삼가고 받든다”(敬恭)는 뜻이었다.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것은 주로 제례(祭禮)를 위하여 목욕재계한다는 뜻이다. 곧 제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목욕하고 음식을 삼가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삼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받든다는 것은 주로 희생 또는 제사를 받들어 신명(神明)을 극진히 위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삼가고 받든다”는 뜻의 공경은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신앙대상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것이다. 이 종교적인 행위는 저마다의 종단에서 구체적인 종교의식(宗教儀式)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유교의 제사, 불교의 불공, 그리스도교의 미사, 예배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인 경천(敬天)은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제1차적으로 “삼가고 받든다”(敬恭)는 뜻인데 이것은 본래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이리하여 경천은 상제님에게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삼가고 받든다는 말은 본래 제사, 미사,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통해 신앙대상을 위하는 종교적인 행위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경천은 제1차적으로는 대순진리회의 일정한 종교의식에 따라서 상제님을 삼가 받드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한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제님을 위하는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종교의식을 통하여 신도들이 삼가 상제님을 받들게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의식을 통해서만 상제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제1차적인 경천은 종단이 주도하는 집단적인 종교행위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사람들(신도)이 집단적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삼가고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상제님을 극진히 받든다는 의미로 공경은 삼가고 받든다는 종교적인 뜻을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제2차적인 경천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종교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교단의 신조에 따라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해야 한다. 원래 한 교단의 수도(修道) 방침에 따라서 어떤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그 교단 신도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도 그 기본교리(신조)에 따라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신도로서의 종교적인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사생활 속에서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종교의식을 통한 저 제1차적인 경천과 다소 그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주로 몸과 마음으로 상제님을 공경하게 된다. 여기에는 집단적인 종교의식은 없고 그 사람이 조용히 몸과 마음으로 상제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이 있을 뿐이다. 홀로 직접 상제님을 공경하는 엄숙한 자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사로 이 수도하는 자리에서 홀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엄숙한 순간에는 오직 그 사람 몸과 마음만이 순수한 공경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도할 때의 공경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가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공경을 앞에서 윤리적인 공경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 종단의 신도로서 종단 차원의 종교의식이 아닌 개인 차원의 수도생활 속에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도로서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량일 것이다. 이 경우의 공경이 윤리적인 공경인데 이것은 그 실천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실천 내용은 좁고 쉬워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상제님을 공경하기 위해 그 공경은 그 사람 몸과 마음만으로도 아니 결국은 마음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경이 바로 윤리적인 공경이고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공경이다.

제2차적인 경천에 있어서는 그 공경은 윤리적인 공경이다. 이를테면 신도는 누구나 나날의 삶 속에서 그 몸과 마음만으로도 상제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곧 윤리적인 공경인데 여기서는 공(恭)은 그 “받든다”는 뜻이 받들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恭遜)는 뜻으로 된다. 경(敬)은 그 “삼간다”는 뜻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뜻으로 된다. 이렇게 윤리적인 공

손은 스스로 몸을 낮추고 마음을 삼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자기의 몸과 마음의 가짐을 강조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몸 가짐과 스스로의 마음 가짐에 조심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윤리적인 공경을 적용한다면 경천은 나날의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올바른 태도만으로도 상제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본래 스스로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의 가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전제다. 저 맹자가 말한 양지(良知)와 양능(良能) 같은 것이 그 좋은 보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종교를 부정하는 도덕주의로 기울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하나의 종교집단으로서 종교적인 근거를 전제하지 않는 도덕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경천에 있어서도 제1차적인 경천을 전제하지 않는 제2차적인 경천은 의미가 없다. 끝으로 조심스럽게 제3차적인 경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도덕적인 공경을 경천에 적용하는 것이다. 곧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만으로도 상제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제3차적인 경천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면 특히 현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세 가지 경천의 조화가 바람직하다.

끝으로 『대순진리회요람』 속에 나타난 경천의 해설을 다시 음미해 보기로 한다.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이라고 한 대목을 좀 바꾸어 “몸과 마음을 삼가 상제님을 받든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것은 경(敬)이고 상제님을 “받든다”는 것은 공(恭)이다. 이 대목은 종교적인 공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종단차원의 종교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모든 종교의식이 결국은 상제님을 공경하는 의식을 그 근원으로서 전제한다.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되풀이하여 강조하는데 이것은 나날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상제님을 공경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인 공경 또는 도덕적인 공경이 전제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인 “경천”은 상제님을 공경하는 종단 차원의 종교의식을 제1차적으로 말한다. 제2차적으로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삼가 상제님을 받드는 개인 차원의 수도지침을 말한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 자나깨나 상제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상제님께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제3차적으로 경천이라고 한다. 이들 세단계의 경천은 서로 보완하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또 이들 세단계는 신도로서의 수도생활의 깊이도 말하여 준다. 언제나 어디서나 상제님을 잊지 않는 종교적인 양심이 수도의 가장 깊은 경지일 것이다.

V. 맺음말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가 경천(敬天)이다. 이 경천은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대순진리회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종교적인 언어라는 것이 먼저 주목되어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종단의 기본교리를 경천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앞에서 공경이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 세 가지 의미를 경천에 적용하여 상제님을 공경하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았다. 그 첫 단계가 종교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둘째 단계가 윤리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셋째 단계가 도덕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첫째로 종교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종단이 공적으로 마련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종단만이 이 종단의 독자적인 신앙대상을 독자적으로 공경하는 종교의식을 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모든 신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유교에서는 제례(天祭)를 통해서 하늘을 공경하였고 천주교와 신교는 미사와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그 신앙대상을 공경한다. 이러한 종교의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집단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것이다. 집

단적인 것은 위의 보기와 같은 것이고 개별적인 것은 평일의 개별적인 기도 또는 수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경천에서 말하는 공경은 바로 앞에서 말한 종교적인 의미의 공경이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삼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둘째로 윤리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신조로서 일반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윤리를 잘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윤리의 근본정신이 바로 윤리적인 의미의 공경이다. 곧 남을 존중하고(恭) 자기 마음을 삼가고 경계하는 것(敬)이 공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경은 종단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미묘한 문제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단으로서는 그 신도가 일반적인 윤리실천도 결국 상제님의 공경을 전제해야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신도로서는 일반적인 윤리실천에 있어서도 경천의 교리를 통해 우위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도덕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도 둘째의 경우와 같다. 대순진리회의 신도로서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도덕적인 자각을 가질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도덕심을 훌륭히 갖출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제님의 공경을 통해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자나 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둔다”는 기본교리는 바로 위 세 단계의 경천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빼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이러한 세 단계의 경천을 통해 대순진리회는 새 천년에 종교로서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